자비심, 마음 잇고 소통을 열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㉖ '이 사랑 통역 되나요?'(2026)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는 자신의 마음에 진솔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소통과 화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넷플릭스 예고편 동영상 캡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4)라는 영화가 있다. 결혼 25년 된 중년의 미국 영화배우가 광고 촬영을 위해 일본에 머무는데, 마침 사진작가인 남편을 따라 일본에 온 젊은 미국인 여성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일본을 배경으로 미국인이 등장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제목을 들으면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의 사랑을 다룬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주인공이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제목은 소통하지 못하는 남녀의 사랑을 의미한다.

처음 '이 사랑 통역 되나요?'라는 드라마 제목을 들었을 때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리메이크 드라마인 줄 알았다. 외국을 배경으로 영화배우가 등장한다는 소개가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 제목만으로도 착각을 했으니, 이미 이 드라마는 필자에게 통역이 제대로 되지 못한 셈이다.

겨우겨우 배우라는 이름을 걸고 사는 무명배우 차무희(배우 고윤정)는 우연한 기회에 '조용한 여인'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좀비 역할을 맡았는데 마지막 촬영을 하다가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를 겪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황,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일약 스타덤에 올라 있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는 동안 영화 '조용한 여인'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며 톱스타가 된 차무희.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 '차무희, 의식 회복'을 속보로 내보내고 무희의 병실에는 회복을 바라는 전 세계 팬들의 수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을 정도다.

얼떨떨해하면서도 연예계에 복귀해 톱스타로서의 인기를 누리던 무희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영화 '조용한 여인'에서 무희가 맡았던 캐릭터인 도라미가 불쑥불쑥 나타나 무희에게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이다.

한편 영어, 일본어, 이탈리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통역하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배우 김선호)은 혼자 가마쿠라에 갔다가 우연히 무희와 만난다. 잠수 이별을 한 무희의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라멘 집에서 일본어를 모르는 무희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

스쳐 지나갈 사이였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톱스타가 된 무희가 데이트 연애 프로그램 '로맨틱 트립'에 캐스팅되면서부터다. 무희가 일본 배우 쿠로사와 히로(배우 후쿠시 소타)와 같이 캐나다, 이탈리아 등지를 돌며 촬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모두 통역할 수 있는 호진이 적임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통역사 주호진이 세계적인 톱스타 차무희의 통역을 맡으며 시작되는 로맨스를 다룬다. 여러 나라의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주호진은 업무에는 빈틈이 없지만 차무희와의 사랑의 언어에는 서툴고, 차무희는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화려한 톱스타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두 사람. 여기에 차무희를 짝사랑하게 되는 일본 배우 히로까지,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일본과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의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설렘 가득한 로맨틱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역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이다. 말 그대로 사람 사이의 장벽을 없애 주는 소통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는 소통이 직업인 통역사와 배우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남녀의 사랑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호진과 무희는 드라마 내내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서로의 본심을 숨기고 엉뚱한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말하면 될 것을, 내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혹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마음과 다른 말들을 하면서 '소통의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주제 의식은 김영환(배우 김원해)의 대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영환이 호진에게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나?"하고 묻자 호진은 사실 그대로 "710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영환이 알려 주는 정답은 "세상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지.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하지"였다. 그러고는 호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랑의 조언을 한다. "내가 듣기에 주호진 언어는 단단하고 반듯하지만 뾰족해."

통역사-배우 사랑서 소통 중요함 보여
진솔한 마음이 진실한 소통과 화해로
자기 마음에 솔직해야 타인과도 소통
마음 전달의 핵심은 언어 아닌 자비심
부처님 설법도 대중 구제 위한 자비심서



'이 사랑 통역 되나요' 공식 포스터.
사진 출처=넷플릭스 홈페이지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세계를 살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우주를 이룬다. 그러니 사람 수만큼 언어가 다르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마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이 아닐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이와 지위와 계급과 빈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진리를 전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이처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것만 봐도 부처님의 설법이 대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런 뜻을 받들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교화를 펼친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각 지역의 언어로 옮겼다.

각 지역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불교 전래의 역사를 번역의 역사가 되도록 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중국인들은 몇백 년 동안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하는 데 애를 썼고, 조선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는 대중들이 쉽게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는 데 국가적인 노력을 했다.

번역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논쟁이 될 만한 것이 아마 직역과 의역의 문제일 것이다. 원래 언어의 구조를 좀 더 드러내 다른 문화를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번역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문자를 번역하는 일과 다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는 통역이라면 조금 다른 양상이 된다. 한쪽이 상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통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사랑한답니다"라고 해야 하는가? 당연히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통역한다. 그 말을 통역자의 감정이 담긴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무희를 향한 히로의 고백을 호진이 제대로 통역하지 않는 장면이 있다. 이미 무희와 마음을 주고받은 호진으로서는 아무리 자신의 일일지라도 다른 남자의 고백을 전하기는 싫었던 것. 통역사로서는 낙제이지만 무희를 향한 마음은 합격이다.

드라마에는 또 다른 통역사가 있다. 바로 무희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도라미라는 존재다. 무희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난 후 환영으로 나타나던 도라미는 결국 가상 인격이 돼 무희의 몸을 조종하기에 이르는데, 현실의 무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도라미가 무희의 진심을 호진에게 전한다.

호진 역시 도라미를 통해 무희의 숨겨진 본심을 확인하고 자신도 훨씬 진솔하게 도라미 상태인 무희를 대한다.

이처럼 사랑의 언어에 서툰 두 사람 사이를 이어 주고 사라지는 도라미. 그런데 알고 보니 도라미가 영화 속 배역이 아니라 무희와 똑같이 닮은 무희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어릴 적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무희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사건의 모든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기억의 바닥에 가둬 버렸다.

살아남기 위해 어릴 적 기억을 없앤 무희는 어머니의 모습인 도라미를 영화 속 배역이라고만 생각한다. 무희 자신과의 통역이 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무희가 스스로와 소통하게 한 힘은 '화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긴 세월 묻어 둔 어릴 적 아픔을 마주하고 나의 어린 시절과 화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라미는 사라지고 무희만이 온전히 남는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자신의 마음에 진솔한 것이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소통과 화해임을 말해 주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한때 제목이 '구원의 통역'이었던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